

# 증시 호황에…광주·전남 주식 거래대금 1달새 77% 급증

1월 9조 1766억…코스피 2배·코스닥 39%, 전월 대비 4조원 늘어

상장 39개사 시총도 대부분 상승…한전 주도 평균 20% 이상 올라

지난달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며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이 4조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부터 잇따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시총)도 20% 이상 올랐다. 이번 시총 상승은 지역 내 규모가 가장 큰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견인

했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 증시동향'에 따르면 1월 중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은 9조 1766억원으로 전월(5조 1744억원) 대비 4조 22억원(77.3%) 상승했다.

지역별로 광주가 6조 4968억원으로 전월보다 78% 올랐고, 전남은 75.9% 오른 2조 6798억원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올랐다.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코스피 거래대금은 6조 1597억원으로 1달 새 3조 1541억원(104.9%) 폭증했고, 코스닥도 3조 169억원으로 8481억원(39.1%)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1~16일 4300선에서 출발해 4800까지 돌파하고, 월말에는 5000마저 넘어서는 등 코스닥보다 상승폭이 커던 만큼 거래대금이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증시가 살아나면서 광주·전남 소재 상장법인 39개사의 시총도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상장법인들의 시총은 1월 말 기준 48조 7503억원으로 1달 새 8조 6840억원(21.7%) 올랐다. 지역별로 광주는 2961억원(9.1%), 전남은 8조 3879억원(22.8%) 올라 전남의 상승폭이 커졌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6개사 시총이 7조 5452억원(19.8%) 올랐고, 코스닥 상장법인 23개사는 1조 1388억원(57.5%) 상승했다.

이는 빛가람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전의 영향이 커졌다. 한전이 지역 상장법인들의 전체 시총 중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데다, 단일 종목 기준 시총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역 상장법인 중 1월 말 기준 한전 시총은 37조 4265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 1258억원 올라 증가액이 가장 커졌다. 이어 한전 KPS(2조 5200억원·2948억원↑), 대한조선(2조 6814억원·1002억원↑) 등 에너지·조선주 등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한전과 한전KPS 시총은 각각 23.5%, 13.2% 오르며 증가율 기준 상위 3개 종목에 이름을 옮기기도 했다.

코스닥에서는 에스오에스웹 시총이 1달 새 1762억원(69.7%) 올라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효성중공업 美서 창사 아래 최대 7870억원 변압기 수주

조현준 회장 멤피스 공장 인수 결실

한국 기업 첫 전력기기 패키지 계약

효성중공업이 미국에서 790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 사업을 수주하면서 창사 아래 최대 성과를 거뒀다.

효성중공업은 10일 "미국 유력 송전망 운송사와 787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기업 최초로 765kV 초고압 변압기, 800kV 초고압 차단기 등 전력기기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미국에서 체결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며 미국 765kV 시장 내 주도적 지위를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전력 수요가 25%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65kV 송전망은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보낼 수 있고, 기존 345kV나 500kV 대비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효성중공업은 2001년 미국 법 인을 설립하고 2010년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수출했다. 2020년부터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운영 중인 변압기 공장은 현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 변압기를 설계·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향후 경쟁력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 전경. <효성 제공>

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2020년 멤피스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인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증설을 포함해 4400억원을 투자했다. 멤피스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창사 아래 최대 규모인 이번 수주는 조현준 회장의 지휘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에너지·전력회사 최고 경영층들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면서 효성중공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인 빌 헤이터 테네시주 상원의원과 수 차례 회동하며 신뢰 관계를 쌓았으며 사프라 캐츠 오라를 CEO(최고경영자), 스콧 스트라직 제너럴일렉트릭(GE) 바노바 CEO, 빌 리 테네시 주지사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회장은 "전력 인프라는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과 초고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설 장보기는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광주·전남중기청 목포 청호시장서 소비 촉진 캠페인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호남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호남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관계자들이 10일 목포 청호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을 열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광주·전남중기청)은 10일 "설 명절을 맞아 목포 청호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와 내수 활성화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호남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호남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등 5개 유관 기관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12일 광주 1913 송정역시장에서도 같은 행사를 열 계획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나눔을 하고 설 명절 세수와 선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시 10%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구입한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광주시 남구 송하동 아동양육시설 신애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경총, 조선대와

'노란봉투법 대응 전략' 특강

광주경총(광주경총)은 "11일 조선대 글로벌대학주진단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자의 책임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의 포괄적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 경영 환경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총은 지역 기업들이 개정 법률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노동법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양주열 파트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쟁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른 교섭 의무 변화,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의 실무적 영향 등을 설명한다.

특강 참가 신청은 광주경총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서울 용산역 광주·전북 비지니스 라운지 개소후 매년 2만여명…누적 방문객 20만명 돌파

수도권 출장 지역 기업인 편의 제공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운영하는 용산역 광주·전남·전북 비지니스 라운지(라운지)의 누적 방문객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출장에 나서는 지역 기업인들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1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라운지 이용객은 2만 8758명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의실 이용 건수도 1949건으로 5.1% 늘어 라운지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상의가 호남권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5월 개소했다. 이후 매년 2만명 안팎의 기업인과 관계자들이 이용하며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상의는 라운지 내 전자 광고판을 통해 지역

기업 제품과 주요 행사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내부 재단장을 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채화석 광주상의의 상근부회장은 "용산역 라운지는 휴게 공간부터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는 비즈니스 현장"이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역 4층에 있는 라운지는 광주·전남·전북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회의실 3곳과 사무·휴게 공간, 업무용 PC, 복합기 등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열차 대기 시간에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과 음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회의실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신보 금융버스 '가드림' 올해도 쟁쟁

전남 전 지역 상담 등 서비스

시장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복구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가드림은 또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협력지원센터,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금융 분야에서도 맞춤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이 밖에 지역 소상공인의 소통창구로서 소상공인 간담회, 일일영예지점장 운영 등을 통해 전남신보와 전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올해 가드림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많은 연 70회 이상으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지역 여건과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보증 지원이 취약했던 영암·곡성 지역은 월 2회 정기 출장상담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강원 전남신보 이사장은 "금융 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역 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버스 가드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멀어서, 바빠서, 몰라서 전남신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가드림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신보가 운영하는 금융버스 '가드림'

## 기업 10곳 중 7곳이 신입사원 채용계획 확정

인크루트, 873개 기업 조사

지난해 대비 7.9%P 증가

올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확정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873개 기업(대기업 102곳·중견기업 122곳·중소기업 649곳)을 대상으로 '2026년 국내 기업들의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출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했다'는 기업은 73.4%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7.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인크루트는 올해 채용 시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 계획 확정 응답은 각각 전년보다 33.3%포인트, 14.7%포인트 상승한 87.3%, 81.1%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경우 2.7%포인트 증가한 69.8%로 나타났다.

채용 방식과 관련해 대졸 정기 채용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27.9%를 기록해 정기 채용 방식의 회복세가 나타났다. 반면 경력직 수시 채용은 17.1%포인트 감소한 55.4%로 전망됐다.

올해 채용 규모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 규모에서 00명(두 자릿수)을 채용하겠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0.5%로 조사됐다. 또 000명(세 자릿수) 답변도 0.7%포인트 늘어난 1.9%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한 곳도 없었던 000명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이 올해 7.8%에 달했다. 000명 채용 응답도 28.2%포인트 증가한 76.6%로 집계됐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그간 채용 시장은 경력직 수시 채용이 대세였지만, 올해는 대기업 신입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 계획을 세운 점이 눈에 띤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